



2021년 12월 12일(제1065호)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황금을 나누는 사람”

옛날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길을 가다가 주먹만 한 금덩어리를 주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한 끝에 자기만 아는 장소에 몰래 묻어뒀다는 거지요. 그런 다음 ‘내 금덩이 잘 있나?’ 한 달에 한 번씩 보러 갔다는 겁니다. 혼자서 몰래 파내서 보고 묻고, 또 파내서 보고 묻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몰래 와서 금덩이는 훔쳐 가고, 대신 그 안에 돌맹이를 가득 채워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란 가지 있습니다. 어차피 그냥 땅에 묻어놓고 보기만 할 거면-그것이 금이든 돌이든 무슨 상관이었겠냐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쓰면 금과 돌은 그 값이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계속 묻어놓기

만 할 거라면... 사실 그 둘은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도 적어도 하나씩 주신 금덩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어떤 재능이나 성품이든, 내가 받은 좋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남을 위하여 잘 쓰면 그 선물은 금덩이겠지만,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하여 혼자 묻어놓는다면? 그것은 돌맹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자선 주일을 맞이하여, ‘돌맹이를 품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황금을 나누는 사람’으로 한 주 지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진우(베드로) 신부
비룡(25사단) 상당 주임

제 1 독 시 스바 3,14-18ㄱ

회 답 송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제 2 독 시 필리 4,4-7

복음 원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 음 루카 3,10-18

영 성 제 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열두 번째 시한

이와 비슷한 생각으로 번민하고 있던 우리 나라 대신들은 함선들이 해변으로 지나간다는 보고를 듣고, 사실은 영국 함선들이었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신부님들의 살해를 보복하러 온 줄로 여기고 떨고 있었으며, 또한 백성들도 서양 함선들이 쳐들어 온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프랑스측에서 이미 여러 해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프랑스라는 나라는 믿었던 것보다 별로 무서워할 바가 못 되는 나라라는 근거 없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모든 공포를 떨치고 또다시 신부님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만일 대신들을 저들 마음대로 내버려둔다면 신부님들이나 우리 신자들이나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실상 왕은 이런 일에 대하여 대체로 무죄합니다. 하느님께서 섭리하여 주소서!

만일 프랑스 군함이 조선에 온다 할지라도 신부님들을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신자들의 처지가 더욱 참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우리가 귀국하는 대로 사형에 처할 작정으로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들 가까이 있어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경계도 충분하지는 못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제가 조선에 돌아온 줄을 대신들이 알게 되면 즉시 사방으로 수색할 것입니다.

신부님들이 순교한 다음에도 신자들은 2년 동안 박해를 더 받았습니다. 지금은 4년 전부터 안온한 상태에 있는데, 신자들의 기운을 회복시키고 외교인들을 입교시키며 모두를 완성시켜 줄 선교사 신부님들을 하루빨리 조선에 모시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자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자수는 신부님들이 순교한 후 오늘까지 줄어들지 않을뿐 아니라 도리어 증가하여 최소한 1만 명은 될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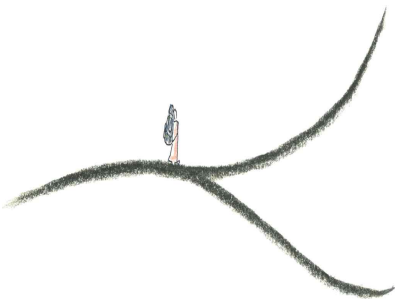
외교인들은 우리 종교의 진리를 깨닫고 하느님께로 귀화하는 사람이 매우 많으며, 그중에는 몇 마디 권고를 듣고서 즉시 입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늘 이렇지



늘 이렇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

기껏 결정하고 왔는데,

그래 이번엔,

또 이런,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갈림길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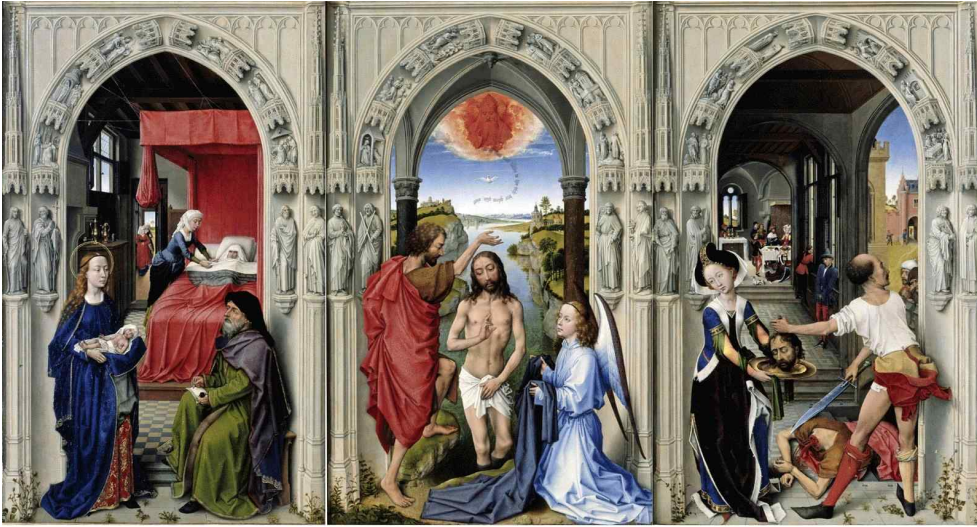
좀, 쉬면서,

이렇게, 몇 번을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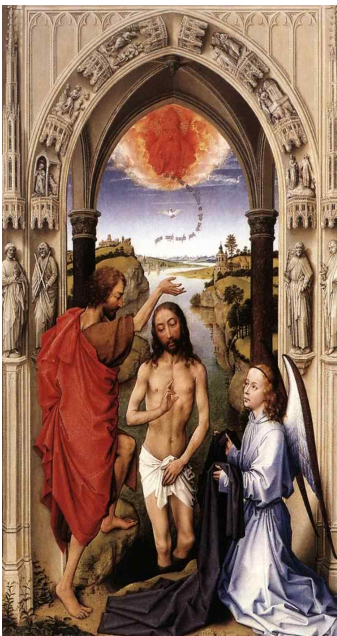
생각해 보자.

상화이야기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로지어 핀 데이 바이덴
1455년 ~ 1460년 作
나무 패널 위 유화
(각 제단화 크기:
77x48cm)
베를린 미술관



지난주에 이어 이 3폭 제단화의 중앙 부분이다. 석조 건물처럼 보이는 전경 바로 뒤로 야외의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 세례자 요한의 오른쪽은 교회 건물처럼 보이는 부분에, 왼발은 야외의 돌에 걸쳐져 있고, 오른쪽의 천사는 예수님의 걸옷을 들고, 교회 건물처럼 보이는 부분에 무릎을 꿇고 있다.

예수님은 물에 다리 아랫부분이 잠기신 채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계시며, 예수님의 머리 위로 비둘기와 하느님의 모습이 구름 속에서 보인다.

교회 건물의 아치처럼 보이는 곳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는 장면 등, 예수님의 생애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생애 등이 조각처럼 그려져 있다.

<다음 주에 계속>



중앙제단화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무임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대림 제3주일: 한발 박혁진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교 영성 모임
 때·곳: 12월 13일(월) ~ 14일(화)
 전주 치명자산 성지 평화의 전당
- 국장회의
 때: 12월 14일(화) 16:00

◆ '신부(神父)의 책장(시즌3)' 인니

- 업로드 플랫폼: 네이버 오디오클럽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상제상시로 기뻐하는 삶” - “니를 먹는 사람도 니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